

테마칼럼

이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영기

정치 코미디, 심판은 국민들 몫



김 행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현(주)넥스트 투자 고문>

특히 호남쪽의 탈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민주당 입당을 타진했는데, 민주당에서 “제발 개별입당은 하지 말고 세를 모아 입당하라”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정치코미디가 없다. 세계 정치사에서 없었던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을 만들었던 여당이 두 번이나 쪼개지고 두 번이나 새로운 여당을 창당하는 진기록이 생긴 것이다.

서 만나 후보단일화라는 극적인 ‘정치 쇼’를 하자는 시나리오로 보인다. 국민들을 참 만만히도 봤다. ‘시사저널’과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일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자.

때는 한나라당 52.3%, 통합신당 6.4%, 열린우리당 6.2%, 민주노동당 6.2%, 민주당 4.0%, 국민중심당 0.4% 순이었다.

구명난 난파선

결국 열린우리당은 탈당과 잔류가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여론에는 이렇듯 하지 않고 이리 쪼개지고 저리 갈라지는 형국이다.

이제 심판은 국민들 몫이다. 벌써부터 탈당과 중 AAA, BBB는 한나라당, CCC, DDD는 민주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다는 식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다.

기네스북에 기록될 일

그런 다음 외부인사도 끌어오고 오픈프라이머리도 하자는 것이다. 일단 리모델링해서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자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통합신당이 나오면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되려 더 상승한다는 것. 현재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50.8%, 열린우리당 8.8%, 민주당 3.6%, 민주노동당 5.9%, 국민중심당 0.2%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 병 희

올 겨울 감기 환자 등이 많이 줄었다. 병원 입장에서 환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뛰놀 수 있다가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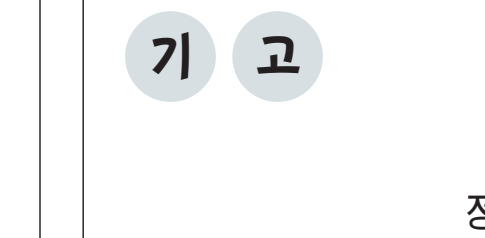
마자 물었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DOA'(Death of Arrival)였다. 병원에 도착해 다시 응급치료를 했지만, 이미 늦었던 것이다.

설 명절, 소아 안전사고 주의하자

등도 없었다. 보호자와 이야기할 틈도 없이, 인공 호흡을 하고 손가락으로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다. 응급차를 타고 함께 온 아이 엄마는 “내 아이 어떻게 하나”며 불안해 했다.

를 해도 순식간에 넘어지고 다친다. 특히 감기 등으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다치는 일이 더 잦아진다.

기 고



정 찬 수

설이 성큼 다가왔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냥 즐거울 수 없는 것이 주부의 마음일 것이다.



정 찬 수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준이 생산을 따라가지 못해 일반농산물로 판매를 하는 광경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설 차례상은 친환경 농산물로

성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마당에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이 며 가족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의 고민을 깊어준다.

요로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싸다.

독자마당

학생들 학과 이름만 보고 지원해 피해보지 말길

지방의 모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내가 다니는 대학의 학과는 산업경영공학이다.

응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교수나 학교 쪽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도 무시하고 진도를 나가 학생들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

시 설

어렵더라도 따뜻한 정 나누는 설이 되길...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는 쌀쌀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쪼든 몸과 마음을 추스려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정은 기업도 비슷하다.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의 중소기업 10개 중 6개 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설을 맞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다. 정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다. 주위에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설의 본래 의미마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서민들은 정보기부부터 겁난다. 과일과 수산물 등 제수용품 값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설의 본래 의미마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균형발전정책에 제동 건 공정위 부위원장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지방 출자 기업에 출자총액제한 제도(출총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방안은 지나치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성장 기반 확충은 기업의 이 전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기업이 있어 야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과 돈이 모이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출자 대기업에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은 가뜰이나 완화된 출자총액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적 최우선 과제다. 민간연구수소들도 그동안 기업도시 기반시설 및 설비투자 등에 출총제의 예외인정을 요구해 왔다.

無 等 鼓

설 명절을 앞두고 외화(外貨) 세뱃돈이 인기라고 한다. 외환은행이 EU의 유로화, 중국 위안화, 미국·캐나다·호주...

찾아갈 수 없는 ‘사회 후생의 손실’ (Deadweight Loss)이다.

사회 후생의 손실

한 포털사이트가 ‘설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이라는 설문 조사를 했더니 현금과 상품권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세뱃돈 품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차량 전조등 상태 확인하고 운행해야 사고 줄인다

야간운전을 할 때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부셔 사고가 날뻐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빛을 읽고 운전하기 때문에 만약 한쪽 등만 작동될 때는 일반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바로 옆을 지나갈 때 야 말건, 핸들을 꺾는 경우도 많다.

▲김선욱·완도 신지피해소

학생들 학과 이름만 보고 지원해 피해보지 말길

지방의 모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내가 다니는 대학의 학과는 산업경영공학이다.

응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교수나 학교 쪽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도 무시하고 진도를 나가 학생들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

▲김정주·광주시 북구 운동동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